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강 경 선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 논문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음악치료가
결손가정 아동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201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손 미 나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음악치료가
결손가정 아동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강경선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손 미 나

인 준 서

손미나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5년 5월

심사위원장_____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_____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_____ (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음악치료가 결손가정 아동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데 있다. 연구대상은 전라남도 여수시 D초등학교 형태적 결손가정 아동 16명으로, 대상자들 중 8명은 실험집단에, 8명은 통제집단에 무선배치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2014년 9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각 회기 당 50분씩 주 1회, 총 10회기로 진행되었다.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집단음악치료 프로그램 중재 후 대인관계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과 사후의 추이를 알아보기 위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을 실시하였다.

Mann-Whitney U 검정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비교에서 대인관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 < .01$)를 보였다. 두 집단의 사전과 사후의 추이를 알아보기 위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 결과에서는 실험집단은 유의미한 차이($p < .05$)를 보이며 증가하였으나, 통제집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5$). 대인관계 7개의 하위영역에서는 만족감, 의사소통, 개방성, 이해성에 대한 결과는 유의미하였으나($p < .01$),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의 결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p > .05$).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음악치료가 결손가정의 대인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재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4
II. 이론적 배경	5
1. 결손가정의 개념 및 특성	5
1) 결손가정 아동	5
2) 결손가정 아동의 대인관계	6
2. 음악치료	8
1) 집단음악치료	8
2) 집단음악치료와 결손가정 아동의 대인관계	9
3. 현실요법	11
1) 현실요법의 기본 개념과 원리	11
2) 현실요법의 상담과정	12
3)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음악치료	14
III. 연구방법	18
1. 연구대상	18
2. 측정도구	19
3. 연구설계	20
4. 연구방법 및 절차	21

1) 사전검사	21
2) 사후검사	21
3) 프로그램 절차	22
4) 음악치료 프로그램	22
5. 자료 분석	28
IV. 연구 결과	29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	29
2. 대인관계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	30
3. 하위요인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	32
4. 대상자별 행동변화 분석	38
V. 결론	44
1. 결론 및 논의	44
2. 제언	46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실험집단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18
<표 2> 통제집단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19
<표 3> 대인관계 척도 구성	20
<표 4> 사전/사후 실험-통제 집단설계	21
<표 5> 집단음악치료 프로그램 한 회기 구성	22
<표 6> 프로그램 회기별 내용	26
<표 7>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동질성 분석	29
<표 8> 대인관계에 대한 Mann-Whitney U 검정	30
<표 9> 대인관계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	31
<표 10> 대인관계 하위요인에 대한 Mann-Whitney U 검정	32
<표 11> 대인관계 하위요인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	33

그림 목 차

<그림 1> 대인관계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평균점수	31
<그림 2> 만족감	34
<그림 3> 의사소통	34
<그림 4> 신뢰감	35
<그림 5> 친근감	35
<그림 6> 민감성	36
<그림 7> 개방성	36
<그림 8> 이해성	3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60년대 이후 국내 사회의 급속한 변동과 함께 전통적인 가족 구조와 기능이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중 두드러진 현상 중의 하나가 결손가정의 증가이다(최애나, 강호현, 2007). 통계청(2013) 자료에 의하면 국내의 전체 가구 수는 2000년 1,450만에서 2011년 1,760만 가구로 0.22%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결손가정의 가구는 2000년 1,124천에서 2011년 1,639천 가구로 0.45%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전체 가구 증가 수에 비해 결손가정의 가구 수가 2배 이상 더 큰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손가정 아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결손가정 아동은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정서적, 지적, 사회적인 행동 면에서 열등감을 느끼고(이은수, 2009), 활동성, 책임성이 낮고 비사교적이며(이지선 외, 2011),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보인다고 한다(이은경, 2004). 또한 결손가정 아동은 대인관계가 제한되어 있거나 원만하지 못하여 또래로부터 고립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지나치게 산만하거나 수동적인 모습으로 또래관계 안에서 부적응 행동을 보인다(강문희, 2005).

이러한 결과들에서 나타난 결손가정 아동의 문제점은 자신의 감정, 갈등,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부모의 지지와 보호가 부족하고 일반가정 아동보다 사회·정서적 발달이 위축되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아동기의 발달과정 중 대인관계 형성은 청소년기, 성인기까지의 사회적 태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정혜진, 신선미, 정태현, 2012). 이러한 맥락에서 결손가정 아동의 대인관계를 돕는 여러 가지 중재 기술 및 프

로그램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예술치료 분야에서는 미술치료, 무용치료, 독서치료, 음악치료 등의 효과에 대해, 심리치료에서는 게슈탈트 집단상담, 인지행동치료, 긍정심리치료, 현실요법 등 아동의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그 중 현실요법은 대인관계 향상에 효과적인 중재방법으로 부각되고 있다(도기봉, 오현숙, 박명호, 2006; 김진주, 고정자, 2010; 우현주, 2006). 현실요법이란,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내담자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행동을 찾아 실천하게 하는 상담방법이다(Glasser, 1965/1988). 현실요법 상담과정을 통해 내담자는 자신과 상대의 기본욕구를 파악하고 서로가 원하는 바를 조절하고 타협함으로써 만족감을 얻게 되고 이를 통해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아동은 상담자와의 계속되는 상담을 통해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타인의 행동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켜 상대방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그러므로 현실요법은 부모의 부재로 타인의 감정을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결손가정 아동의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요법에서의 상담 기법은 아동과 성인의 구분 없이 적용되며, 복잡한 상담절차와 지루한 상담환경으로 상담 과정에서 아동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중재 방법이 음악치료이다. 아동은 음악을 통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다른 아동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으며(Bruscia, 1999/2003), 내재화된 에너지를 표출하고 타인과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한다(진소영, 2001). 음악을 통한 자기표현은 아동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내적 긴장감과 불안을 해소시키는데 효과적이다(Boyle, Radocy, 2001/1997).

음악의 힘은 개별 활동으로 진행될 때보다 집단 활동일 경우에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연주에서는 음악을 완성하기 위해 타인과 협력하게 되고, 자신을 집단 안에 통합시켜(여정윤, 2010), 다양하고 역동적인 활동으로 자기표현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집단음악치료에서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에게 적절한 자기표현을 통해 의사소통능력을 발달시켜 타인과 더불어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안지숙, 2008). 이러한 음악의 치료적 기능을 현실요법의 상담과정에 접목할 수 있다.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음악치료는 현재의 행동변화를 통해 대인관계 향상에 초점을 두는 현실요법의 장점과 집단 안에서 또래와의 공통된 경험을 통해 사회적 상호관계를 향상시키는 집단음악치료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다. 음악은 현실요법의 상담과정에서 다루기 힘든 미성숙한 아동의 내면 탐색을 용이하게 한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아동의 생각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자신의 욕구를 들여다보게 하여 타인을 이해하는 힘을 기르는데 음악은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관계향상을 위한 W-D-E-P의 실행 계획에 다양한 음악 활동이 더해져 아동의 흥미와 집중도를 향상시키고 집단의 소속감과 응집력을 강화시켜 긍정적인 대인관계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음악치료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심리적·정서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결손가정 아동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음악치료와 대인관계의 효과성을 증명한 연구는 현재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실요법의 상담과정에 집단음악치료를 접목시켜 결손가정 아동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음악치료가 결손가정 아동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치료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은 통제 집단보다 대인관계에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는가?

1-1)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은 통제 집단보다 대인관계 하위요인(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에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는가?

II. 이론적 배경

1. 결손가정의 개념 및 특성

1) 결손가정 아동

결손가정이란 가정의 형태적 측면이나 기능적 측면의 결함을 의미하며 가족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이나 의식이 결여된 가정의 자녀를 뜻한다(최지순, 김정규, 2008). 형태적 결손가정은 부모가 사망, 별거, 수형, 이혼 등의 이유로 아동과 함께 동거하지 않는 가정을 말한다. 반면 기능적 결손가정은 양친이 다 같이 있더라도 가족 간 유대가 단절되어 가정의 역할이 수행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영란, 안민주, 2005).

결손가정은 일반가정에서처럼 자녀에 대한 보호·지도가 어렵기 때문에 자녀들은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기광도, 2009). 부모의 부재로 아동은 불안, 초조, 우울감을 느끼며 더 나아가 분노가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경우가 많다(안세근, 이현길, 2001). 결손가정 아동은 불안정한 가정환경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며 이는 자아 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쳐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조수연, 안귀여루, 2009). 결손가정 아동은 심리적인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학업적인 면에서도 성취동기가 낮고(김문주, 심혜숙, 2012), 자신의 장래에 대해 부정적이며 적절한 인성발달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이근매, 2004).

따라서 결손가정 아동들은 일반가정 아동보다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면에 있어 여러 가지 역기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교생활이나 대인관계 등에서 문제행동을 보인다(이혜령, 유형근, 조용선, 2014). 이러한 부정적

정서와 부적응 행동으로 고통받는 결손가정 아동들이 행복한 학교생활과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결손가정 아동의 대인관계

대인관계는 두 사람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평생 동안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김현지, 성영혜, 2003). 특히, 어린 시절에 가족과 맺는 인간관계는 학교에서 또래관계 형성과 성장 후 사회에서 맺게 되는 인간관계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동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학교생활을 통해 교우, 교사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정미라, 장영숙, 김순규, 2011). 이 시기에 아동은 친구들과 어울려 생활하면서 다른 아동의 욕구를 알게 되고 그 입장을 인식하게 되는 등 사회적 통찰력이 발달하게 된다(최명민, 2000). 이를 통해 그들은 타인과의 교섭이나 협동에 익숙해지고 자기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나 주변 세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와 성숙한 사회성을 갖는다(조미숙, 2005).

그러나 결손가정 아동은 안정적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결여로 대인관계를 위한 성숙한 모델을 접할 기회가 부족하다. 이로 인해 타인의 감정 표현을 모방하고 학습할 기회가 충분치 못하여 대인관계 형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안세근, 이현길, 2001). 강문희(2005)의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현장에서 결손가정 아동은 자신의 감정이 억압되어 표현이 서툴고 참여적인 행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결손가정 아동은 또래와의 갈등상황에서 그들의 행동을 적대적인 동기로 해석하고 공격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 또래로부터 고립을 당하게 된다(이인희, 김명숙, 201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손가정 아동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불안·우울·욕구불만·소외 등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배

홍숙, 2014). 대인관계 형성은 외부환경과 상호작용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손가정 아동에게 긍정적인 지원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2. 음악치료

1) 집단음악치료

집단음악치료는 구성원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통합시키고 다양한 음악 활동 안에서 내담자의 부정적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체계적인 과정이다(양지은, 2007). 집단음악치료에서 음악은 비언어적인 수단으로써 여러 사람들과 자유로운 소통의 방법을 제공하며(Layman, Hussey, Laing, 2002), 다양한 정서와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의 역할을 한다(Saarikallio, 2010). 또한 그룹의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을 제공하여 소외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며 타인과의 상호교류를 용이하게 한다(Wanda, 2002/2009). 이에 대해 Brooks(1973)는 그룹에서의 경험은 응집력을 촉진시키며 의사소통 기술을 증진시켜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언급하였다.

집단음악치료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민화(2014)는 노래를 중심으로 한 집단음악치료 활동이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에 효과적이며 학교 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조은희(2009)는 음악적 구조에 맞춰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타인과 함께 협력하여 악기를 연주하는 집단악기연주 활동이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통제와 문제행동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박광선, 주대창(2013)은 여러 형태의 집단음악활동이 자아존중감 향상과 교우관계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전희란(2009) 역시 집단음악치료 활동이 청소년의 소외감 감소와 스트레스 및 분노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집단음악치료는 타인과의 긍정적 교류를 촉진하여 그룹 원 간의 유대감을 경험하게 하고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감소시킨다. 나아가 개개인의 만족감과 성취감을 제공한다(김동주, 2011). 따라서 집단음악치료는 부모의

부재로 올바른 관계형성을 경험하지 못하는 결손가정 아동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과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집단음악치료와 결손가정 아동의 대인관계

집단 안에서 음악을 통한 자기표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직접적인 판단을 받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진선주, 2005), 올바른 의사소통과 바람직한 대인관계로 나아가게 한다. 집단 안에서의 음악활동은 서로에게 의지하고 지지해주면서 타인에 대한 존중과 협동심을 길러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서경희, 2010).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손가정 아동은 자신과 타인의 음악활동에 집중하게 되고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음악을 타인과 교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경험하게 된다(Tervo, 2001). 결손아동은 옆 친구를 모방하기도 하고 불필요한 습관이나 행동을 교정 받기도 하면서 부적응 행동을 제거하고 또래관계를 회복해 나가게 된다(조은희, 2009). 따라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행동으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보이는 결손가정 아동에게 집단음악 치료는 치료적 도구가 될 수 있다.

집단음악치료는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중재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안지숙(2008)은 집단음악치료가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기술과 내적 욕구 통제 능력을 발달시켜 타인과의 관계를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집단음악치료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음악이라는 안전한 환경 안에서 타인과의 교류 방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하였으며 문지영, 이수진(2010)은 집단 안에서 구성원들과 가사 내용에 대해 토의하고, 음악 감상을 통해 자신의 느낌을 나누는 과정에서 대인관계 기술의 발달을 이끈다고 밝혔다.

다. 신미경, 정규진, 최애나(2011)는 집단음악치료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의 협동 및 자기주장, 자기조절능력이 향상되고 긍정적 사회 활동이 증가하여 또래 관계 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집단음악치료는 수용적 환경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하고 감정교류를 통한 관계형성으로 개별 치료보다 대인관계 향상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집단음악치료는 결손가정 아동에게 심리적 안정과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여 자유롭게 내재된 감정을 표현하게 유도할 것이다. 또한 구성원으로부터 지지와 격려를 통해 얻은 자신감은 긍정적인 자아형성과 대인관계 형성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집단음악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손가정 아동의 대인관계의 효과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3. 현실요법

1) 현실요법의 기본 개념과 원리

현실요법은 정신과 의사인 글래서(W. Glasser)에 의해 체계화된 상담기법으로 선택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이론은 인간은 심리적 욕구에 의해서 동기가 유발되는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존재이며 성장과 변화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실요법의 목표는 내담자가 성공적인 정체감을 갖도록 효율적인 행동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정영남, 2000). 즉 인간이 삶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이론과 방법을 배워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데 있다(김세영, 박부진, 2011). 이러한 현실요법을 통하여 개인은 자신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고 삶에 대한 통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김인자, 2001).

우블딩(R. Wubbolding)은 현실요법의 전개에 적용되는 선택이론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첫째, 인간은 다섯 가지 기본적인 욕구들을 가지고 태어나며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인간은 행동한다고 본다. 다섯 가지 기본적 욕구들이란 생존 및 생식의 욕구, 소속, 사랑의 욕구, 힘에 대한 욕구, 자유에 대한 욕구, 즐거움에 대한 욕구를 말한다.

둘째,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개인이 지각한 현실 세계간의 격차가 클 때 좌절과 고통을 경험하고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 행동을 하게 된다.

셋째, 인간의 행동체계는 활동하기, 생각하기, 느끼기, 신체 반응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을 총칭하여 전 행동(Total behavior)이라 일컫는다. 전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 인간이 쉽게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활동하기와 생각하기를 먼저 변화시키면 느끼기와 신체반응은 그것에 따라 변

화하게 된다.

넷째, 인간은 감각체계와 지각체계를 통해 세상을 본다. 지각체계에는 두 가지 보편적 수준이 있는데 일차 수준의 지각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이차 수준의 지각은 판단을 내리고 쟁점이나 사건들에 대해 주관적 가치를 부여하고 말이나 행동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게 하는 차원을 의미한다(Glasser, 1985/1992).

2) 현실요법의 상담과정

현실요법 상담과정은 상담환경 가꾸기와 내담자의 행동변화를 위한 두 가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담은 이 두 과정을 조화롭게 엮어 내어 내담자로 하여금 그들의 삶을 스스로 평가하고 바람직한 변화를 위한 선택을 결심하도록 돕는다(김인자, 2005).

① 상담환경 가꾸기(Relationship)

상담자는 지지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그 안에서 내담자들이 삶을 변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상담환경을 가꾸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근감을 가지고 내담자의 이야기를 경청한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그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 내담자의 과거사는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한 이야기하지 않도록 한다. 현실요법에서는 과거보다 현재를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셋째, 내담자의 느낌이나 신체반응을 전 행동과 분리시켜서 논의하게 하지 않는다. 내담자의 직접통제가 가능한 현재의 활동 요소들과 연결시키도록 해야 바람직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Wubbolding, 1998/2008).

② 행동변화를 위한 상담의 과정 및 절차

우볼딩(R. Wubbolding)은 내담자의 행동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상담과정과 절차를 제안하였다. 이는 개인의 욕구 및 바람 탐색단계(Want), 전 행동 탐색 단계(Doing), 평가단계(Evaluation), 계획단계(Plan)로서 W-D-E-P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바람(Want)단계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바람, 욕구를 탐색하여 진지하게 상담에 임할 수 있도록 내담자로부터 약속을 받아내는 단계이다. 내담자는 상담자를 신뢰하게 되어 자신만이 간직했던 욕구를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둘째, 행동(Doing)단계는 전 행동을 탐색하는 과정이다. 내담자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규명한 후에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혹은 그곳에 도달하기 위하여 내담자가 현재 어떠한 행동을 선택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구체적으로 탐색해 볼 수 있도록 촉진한다.

셋째, 평가(Evaluation)단계는 내담자의 현재 행동이 자신의 바람을 성취하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자기 평가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내담자는 행동이 곧 자신의 선택임을 인지하고 진정 자신과 타인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평가해 보게 된다.

넷째, 계획(Plan)단계는 내담자가 자신의 바람을 충족시키기 위해 보다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계획하는 과정이다. 내담자가 자신이 선택한 행동이 원하는 것을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 상담자는 내담자가 새로운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촉진한다. 내담자를 도와 내담자가 원하는 바람, 특히 원하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도움이 되는 좋은 계획을 세우도록

안내한다. 이때 활동계획은 단순하고 구체적이며 즉각 실행이 가능해야 한다 (Wubbolding, 1976/2001).

이러한 현실요법은 아동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서석희, 박애선(2007)은 현실요법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노인의 죽음불안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켰다고 보고하였고 김영호, 최웅용(2006)은 대학생에게 현실요법 진로 집단 상담을 실시하여 내외통제성을 향상시켰음을 밝혔다. 이재모(2006)는 학교생활 부적응 청소년에게 현실요법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를 향상시켰다고 보고 하였고, 김진주, 고정자(2010)는 아동에게 현실요법 집단 미술치료를 실시하여 대인관계가 향상됨을 밝혔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은 토대로 현실요법을 집단치료에 적용했을 때 심리적, 행동적인 측면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3)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음악치료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음악치료는 현실요법의 상담과정에 음악치료 기법을 접목한 모델이다. 즉, 내담자의 욕구를 탐색하여 효율적인 행동을 선택하도록 돕는 현실요법의 특성과 비언어적 수단인 음악을 통해 긴장과 두려움을 감소시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음악치료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다.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음악치료에서 치료의 초점은 또래와의 좋은 관계 형성에 두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계획과 실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강조한다. 대인관계 향상을 위해서는 그룹 원의 근본적인 욕구를 탐색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언어적 표현을 통해 진행되는 현실요법의 상담과정은 자칫 아동의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치료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현실요법의 상담과정 각 단계마다 음악적 중재를 사용하여 자신과 상대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계획과 활동을 수행하게 한다. 이를 통

해 언어적 표현이 중시되는 구조적 상담과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음악적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그룹 원과 교류하고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면서 대인관계 향상을 이끌 수 있다.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음악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은 자신의 감정을 긍정적이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고 서로가 요구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이해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대인관계의 기초가 되는 자기 노출 및 자기개방성을 향상시켜 긍정적인 대인관계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현실요법을 적용한 음악치료 프로그램 내용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바람 탐색(Want)단계이다. 이 단계는 자신과 타인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탐색하기 위한 단계로 노랫말 채우기와 타악기 즉흥연주로 구성된다. 노랫말 채우기는 내담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과 생각이 상징, 비유, 은유 등을 통해 나타나며 형식의 구애 없이 자유로운 창작과정을 거치면서 자신과 상대의 내면 욕구와 바람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도와준다(임지혜, 2009). 즉흥연주는 내담자의 음악적 소질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고 내면세계를 통찰하는 기회를 제공하며(Aigen, 2005/2011), 타인과의 소통을 유도한다(서종미, 2013). 이를 통해 아동은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타인에 대한 욕구를 탐색하여 타인을 수용하는 자세를 배우게 된다.

두 번째는 행동탐색(Doing)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악기 연주를 통하여 감정을 표현하며 연주 활동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악기로 감정 표현하기에서는 다양한 음색의 악기를 활용하여 자신의 불안, 분노, 적의와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 한다. 아동은 악기 연주를 통해 드러난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다른 대상자와 비교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보다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된다(강노아, 2009). 악기연

주는 리듬, 템포, 강도 등 다양한 변인을 통해 내담자의 심리적 상태와 내면적 문제를 반영하며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한다(허순희, 2002). 이러한 경험은 정서를 자극하고 이완시켜 부적절하고 부적응적인 행동을 탐색하여 조정하는데 효과적이다(문지영, 2010).

세 번째는 자기평가(Evaluation)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내담자들의 욕구와 행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노래 감상과 노래 가사 토의를 사용한다. 노래 가사는 삶의 다양성과 보편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바라 볼 수 있도록 하며(정현정, 2009), 자신과 동일시되는 가사 및 멜로디의 분위기를 통해 아동은 개인의 문제를 통찰하게 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만들어 나간다(정현주, 김동민 2010). 치료사가 선곡한 노래를 감상하고 가사를 분석하는 가사토의 활동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다양한 감정을 수용하고 표현할 수 있게 유도하며(박환영, 2013), 자신이 해왔던 행동을 평가해보고 생각을 재정리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이때 아동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의견을 들으며 경청하는 능력을 기르고 나와 타인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있는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원만한 대인관계의 기회를 갖는다.

마지막은 계획하기(Plan)단계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단계를 마무리하는 단계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바람직한 행동을 계획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긍정적인 대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노래 만들기를 통해 표현한다. 노래 만들기는 자기 자신의 고유한 생각, 감정, 행동들에 기초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도우며(John, 2005), 나아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이민화, 2014). 아동은 노래 만들기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래 친구가 만든 가사를 통해 서로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아동들에게 긍정적 강화가 되며 스스로 계획

과 행동을 점검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데 효과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4단계로 구성된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음악치료가 결손가정 아동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해보고 그 효과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라남도 여수시 D초등학교 결손가정 아동 16명을 선정하여 실험집단 8명, 통제집단 8명으로 무선 배치하였다. 결손가정은 형태적 결손가정으로 한정하였으며 모든 아동은 음악치료 경험이 없는 아동들로 구성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1>, <표 2>와 같다.

<표 1> 실험집단 대상들의 일반적 특성

대상	나이	성별	가족사항
1	13	여	조손가정
2	13	남	한부모가정
3	12	남	조손가정
4	12	여	한부모가정
5	11	여	한부모가정
6	11	남	한부모가정
7	11	남	조손가정
8	11	남	한부모가정

<표 2> 통제집단 대상들의 일반적 특성

대상	나이	성별	가족사항
1	13	남	한부모가정
2	13	여	한부모가정
3	13	남	조손가정
4	12	여	한부모가정
5	12	여	조손가정
6	11	남	한부모가정
7	11	여	한부모가정
8	11	남	조손가정

2. 측정도구

1) 대인관계 척도

본 연구에서는 Schlein과 Guerney(1977)의 'Relationship Change Scale'을 문선모(1980)가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하였고, 이를 심경옥(2006)이 아동용으로 수정한 척도를 사용한다. 이 척도는 25문항으로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의 7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측정도구는 리커트식 척도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1점부터 5점까지 척도상에 표시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높으며 낮을수록 그 반대를 의미한다. 심경옥(2006)이 제시한 이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90이다. 각 하위영역별 문항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3> 대인관계 척도 구성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만족감	4	1,2,3,4
의사소통	5	9,14,18,19,24
신뢰감	3	15,17,23
친근감	3	5,11,16
민감성	2	6,10
개방성	4	12,20,21,22
이해성	4	7,8,13,25
전체	25	

3. 연구설계

본 연구의 목적은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음악치료가 결손가정 아동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사전-사후, 실험-통제 집단설계 (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이다.

<표 4> 사전/사후 실험-통제 집단설계

집단	사전검사	음악치료활동(처치)	사후검사
실험집단 R	O ₁	X	O ₃
통제집단 R	O ₂		O ₄

(R : 무선배치, X : 처치, O₁ - O₄ : 대인관계 척도 검사)

4. 연구방법 및 절차

1) 사전검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기본적인 정보는 학교 내 담임교사와 지역아동센터 담당교사를 통해 직접 수집하였다.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1주일 전 개별적으로 동일한 환경 가운데서 연구자에 의해 대인관계 검사를 실행하였다.

2) 사후검사

사후검사는 음악치료 프로그램 종결과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사전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대인관계 검사를 실시하였다.

3) 프로그램 절차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2014년 9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회기 당 50분씩 주 1회, 총 10회기로 실시되었으며 10회기에 걸친 프로그램은 다음의 <표 5>와 같이 제시한 구조화된 음악치료 프로그램으로 시행되었다.

<표 5> 집단음악치료 프로그램의 한 회기 구성

구성	시간	활동내용
도입	5분	Hello song, 위밍업 활동
전개	40분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음악치료 활동 (노래 만들기, 노래 부르기, 노래 감상, 노랫말 채우기, 악기연주)
마무리	5분	활동 후 느낌나누기, Good-bye song

4) 음악치료 프로그램

본 연구의 매회기 시작은 인사 노래를 부르며 시작되고 준비된 프로그램이 모두 끝나면 마침 노래로 마무리하였다. 프로그램은 총 10회기로 구성하였으며, 각 회기의 목표에 맞는 활동을 준비하였다. 프로그램 단계는 관계형성(Relationship), 바람탐색(Want), 행동탐색(Doing), 자기평가(Evaluation), 계획하기(Plan)의 단계로 진행되었다.

각 회기별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1회기는 라포 형성의 단계로 그룹 원 간의 친밀감을 쌓고 관계를 형성을 하는 단계이다. 치료사가 준비한 인사 노래와 마침 노래를 익히고 간단한 자기소개와 선호하는 음악을 나눔으로써 치료사와 그룹 원 간의 상호 교류와 친밀감이 형성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2-3회기는 자신의 욕구와 바람을 탐색하는 바람탐색(want) 단계이다. 2회기는 대중적인 노래로 아동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곡인 유리상자의 <아름다운 세상>을 감상하였다. 노래 감상 후 자신이 원하는 세상에 대해 각각 이야기해보고 치료사가 의도적으로 준비한 빈칸에 노랫말 채우기를 하도록 하였다. 자신이 가장 마음에 드는 소절을 선택하게 하여 해당 소절에서 자신이 선택한 악기로 즉흥연주를 하며 다 함께 노래하도록 구성하였다. 노래에 대한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하고 자연스럽게 그룹 원과 나눔으로 대인관계 하위 요인인 개방성이 향상되도록 하였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면서 친밀감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3회기는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노랫말이 제시된 <친구가 되는 멋진 방법>을 불러보고 자신이 원하는 친구관계를 노래 안에 개사해 부름으로써 친구 관계에서 나와 타인의 서로 다른 욕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수용의 자세를 길러 대인관계 하위 요인 중 이해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경험하게 하였다.

4-6회기는 총체적 행동과 방향을 탐색하는 행동탐색(Doing) 단계이다. 4회기에는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갈등 상황, 화가 나는 상황,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이야기해보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타 악기로 표현하게 하였다. 악기를 통해 드러난 상대의 감정을 빠르게 인식하고 타인의 행동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민감성이 향상되도록 하였다. 갈등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행동을 선택했는지 이야기해 본 후 긍정적인 노래 가사

로 아동들의 선호도가 높은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를 불러보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자신의 부정적인 행동이나 사고를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길러 긍정적인 대인 관계를 경험하도록 구성하였다. 5회기에는 반복되는 멜로디와 가사를 사용한 곡으로 악동 뮤지션의 <매력 있어>를 함께 불러보고 가사 내용 중 ‘매력 있어, OO 매력 있어’에 그룹 원의 이름을 넣고 각 참여자의 장점을 개사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룹 원은 타인의 피드백을 통해 자신이 알지 못 했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만족감을 경험하게 하고 자신의 긍정적인 행동을 탐색할 수 있게 하였다. 장점을 나누며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과정에서 신뢰감이 두터워지고 친근감이 향상되도록 구성하였다. 6회기는 친구들과의 갈등 상황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행동을 이야기해 보고 그 행동들이 올바른 행동인지를 탐색해 보도록 하였다. 단순한 선율로 이루어져 가사 바꾸기가 용이하고 쉽게 익힐 수 있는 박혜경의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노래에 변화되기 원하는 행동을 개사하여 부르도록 하였다. 또한 노래에 맞춰 그룹 원과 함께 핸드벨 연주를 함으로써 자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역할수행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감을 경험하여 그룹 응집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7-8회기는 행동에 대한 자기평가(Evaluation) 단계이다. 7회기는 자신의 현재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내용이 담긴 토이의 <스케치북>노래를 감상하고 가사 토의를 하도록 구성하였다. 학교생활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보고 서로의 생각을 나눔으로 자신의 행동을 탐색하고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룹 원에게 자신을 개방함으로써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가사 토의를 마치고 긍정의 메시지가 담긴 후렴구를 다 같이 불러봄으로써 아동들이 지금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였다. 8회기는 태사비에 <소원을 말해봐>노

래 가사의 내용을 개사하여 자신이 버리고 싶은 행동이나 습관으로 바뀌 불러 보고 그룹 타악기 연주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음악을 통한 의사소통으로 집단의 소속감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9-10회기는 마무리 단계로 긍정적 행동을 계획하는 계획하기(plan) 단계이다. 9회기는 10년 뒤 내가 원하는 모습에 대해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발표하도록 하였다. 각자 쓴 편지 내용을 루씨의 <무비스타>에 개사하여 노래를 만들도록 하였다. 이 곡은 가사 바꾸기가 용이하고 반복적인 멜로디 라인으로 아동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곡이다. 후렴구의 'I wanna be a movie star'에서 'movie star' 부분에 한 사람씩 자신의 꿈을 넣어 부름으로써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 10회기에서는 좋은 친구관계를 만들기 위한 긍정적인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였다. 계획의 내용을 각자 종이에 적어 무한도전의 <그래, 우리 함께> 노래에 개사해 보도록 하였다. 후렴구는 응원의 메시지가 담긴 가사로 편곡하여 서로에게 용기를 실어주고 지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하나의 노래를 함께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대인관계 하위요인 의사소통이 향상되게 하였고 용기와 지지를 통해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되도록 구성하였다. 노래에 맞춰 참여자들이 함께 튕 차임 연주를 함으로써 자신의 역할 수행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고 협동과 조화를 통해 자연스러운 사회적 교류를 하도록 하였다.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회기별 내용은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프로그램 회기별 내용

현실요법 단계	회기	주제	단계별 목표	활동내용
Relationship	1	자기 소개	친밀감 형성	·인사노래와 마침노래 소개 ·자기소개 및 별칭노래 만들기
Want	2	나의 마음속	욕구와 바람 탐색	·자신의 바람 탐색 -<아름다운 세상> 노래 감상 -노랫말 채우기 -타악기 즉흥연주
	3	희망 사항		·나의 욕구와 타인의 욕구 이해 -<친구가 되는 멋진 방법> 노래 부르기 -노랫말 채우기
Doing	4	나의 모습	행동 탐색	·자신의 행동 탐색 -감정·행동 악기 표현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노래 부르기
	5	너와 나		·긍정적인 자신/타인 인식 -<매력 있어> 칭찬 노래 만들기
	6	나에게 하고픈 말		·부정적 행동의 변화 가능 탐색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노래 개사하기 -핸드벨 연주

Evaluation	7	무엇을 하고 있나	자기 평가	·자신의 행동 평가로 타인 이해 -<스케치북> 노래 감상 - 노래 가사토의
	8	버리고 싶은 모습		·현재 실천 행동에 대한 평가 -<소원을 말해봐> 노랫말 채우기 - 타악기 연주
Plan	9	미래의 나	행동 계획	·구체적인 계획 수립 -10년 후 나에게 편지 -노래 만들기 -<무비스타>노래 부르기
	10	우린 친구		·나와 타인을 위한 계획 수립 -<그래, 우리 함께>노래로 친구들과 응원 노래 만들기 - 톤 차임 연주

5.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무선으로 할당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대인관계능력 점수 및 그 하위 요인에 대하여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여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프로그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 변화량에 대한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고 사전 사후 차이에 대한 변화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Wilcoxon Matched Pair 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대인관계 하위 요인(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의 통계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 변화량에 대한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고, 사전 사후 차이에 대한 변화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Wilcoxon Matched Pair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본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n=16) 모든 통계적 분석은 비모수 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5$ 이다.

IV. 연구 결과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동일한 집단으로 구성되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대인관계능력 척도 및 하위요인 사전 점수에 대해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대인관계능력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점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p >.0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동질한 집단으로 드러났다. 즉 하위 요인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 전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p >.05$)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동질성 분석

측정치	실험집단(n=8)	통제집단(n=8)	U	Z	p
	평균순위(순위합)	평균순위(순위합)			
대인관계능력	8.25(66.00)	8.75(70.00)	30.00	-.21	.834
만족감	8.31(66.50)	8.69(69.50)	30.50	-.16	.873
의사소통	8.50(68.00)	8.50(68.00)	32.00	.00	1.00
신뢰감	8.38(67.00)	8.63(69.00)	31.00	-.11	.912
친근감	8.13(65.00)	8.88(71.00)	29.00	-.32	.747
민감성	7.44(59.50)	9.56(76.50)	23.50	-.94	.347
개방성	8.56(68.50)	8.44(67.50)	31.50	-.05	.957
이해성	8.94(71.50)	8.06(64.50)	28.50	-.38	.703

* $p <.05$

2. 대인관계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

음악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대인관계능력에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전점수와 사후점수의 변화량에 대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변화량에 대한 통계적 차이는 유의미하였다($p < .01$).

<표 8> 대인관계에 대한 Mann-Whitney U 검정

측정치	실험집단 변화량	통제집단 변화량	U	Z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대인관계능력	11.88(3.94)	1.50(2.78)	.00	36.00	.001**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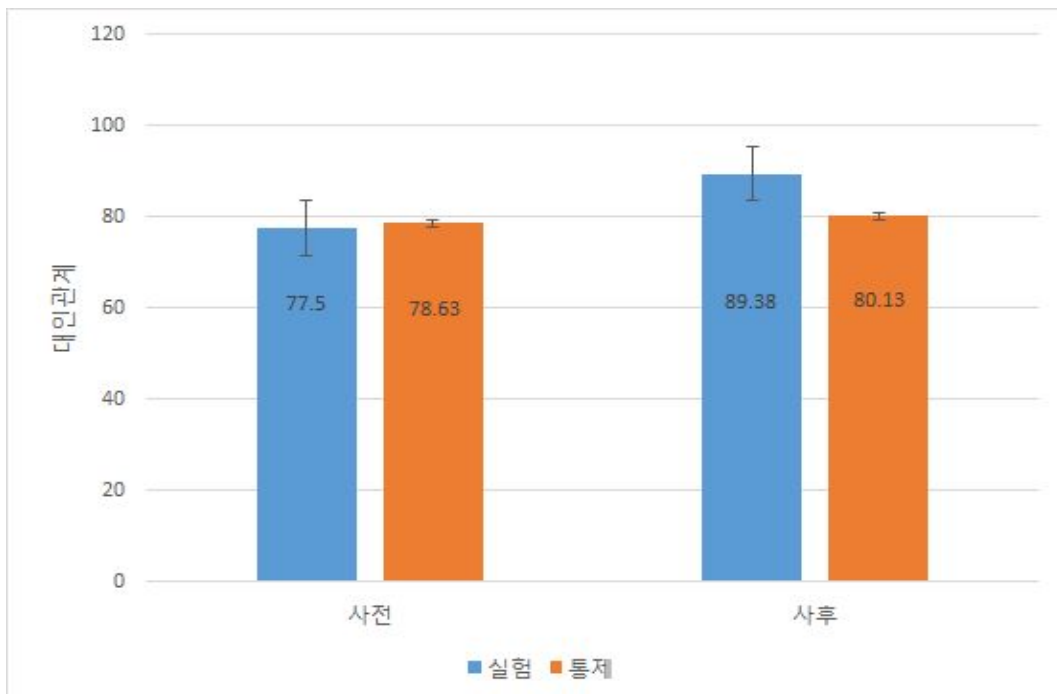
변화의 추이를 보기 위해 각 집단의 사전과 사후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을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 < .05$)를 보이며 증가하였으나 통제집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5$). 이에 대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대인관계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

	사전검사	사후검사	Z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실험집단	77.50(8.59)	89.38(5.78)	-2.53	.012*
통제집단	78.63(7.29)	80.13(8.13)	-2.40	.180

* $p < .05$, ** $p < .01$, *** $p < .001$

대인관계에서 실험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Z=-2.53$ $p < .05$)를 보이며 증가하였으나 통제집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Z=-2.40$, $p > .05$). 이에 대한 결과는 <그림1>과 같다.



<그림 1> 대인관계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평균점수

3. 하위 요인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

음악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대인관계능력의 하위 요인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전점수와 사후점수의 변화량에 대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만족감, 의사소통, 개방성, 이해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p < .01$),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요인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5$). 이에 대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대인관계 하위 요인에 대한 Mann-Whitney U 검정

측정치	실험집단 변화량	통제집단 변화량	U	Z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만족감	2.88(1.25)	1.50(2.78)	4.00	-3.02	.003**
의사소통	2.50(1.41)	.38(1.06)	3.50	-3.10	.002**
신뢰감	.50(.93)	.50(.76)	31.00	-.11	.909
친근감	.38(.92)	.00(.00)	24.00	-1.11	.269
민감성	.50(.76)	.63(.92)	30.50	-.18	.855
개방성	1.63(.74)	.25(1.04)	8.00	-2.71	.007**
이해성	3.50(1.51)	.13(.83)	1.50	-3.32	.001**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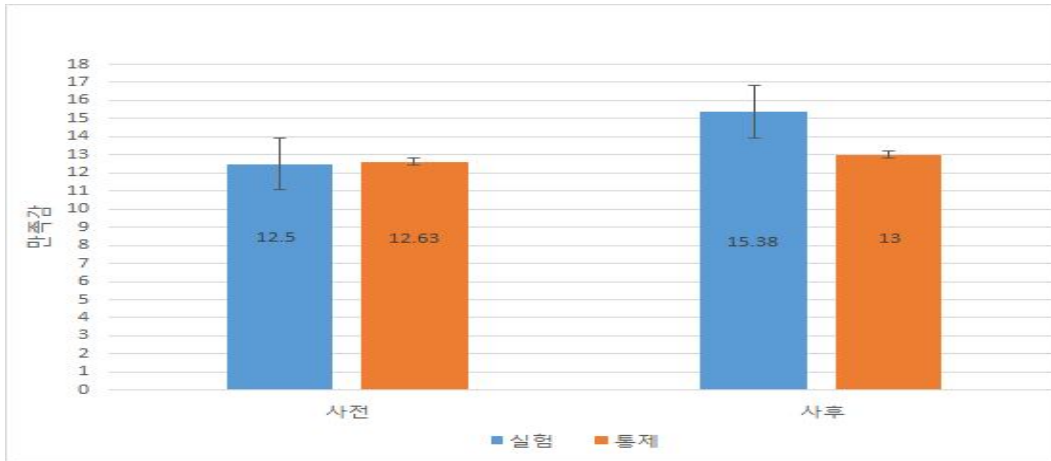
각 하위요인에 대한 점수변화의 추이를 보기 위해 각 집단의 사전과 사후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대인관계 하위 요인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

하위요인	집단	사전검사	사후검사	Z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만족감	실험집단	12.50(1.60)	15.38(1.06)	-2.54	.011*
	통제집단	12.63(1.85)	13.00(2.14)	-1.09	.276
의사소통	실험집단	15.38(2.50)	17.88(2.17)	-2.40	.016*
	통제집단	15.63(1.85)	15.25(1.67)	-1.09	.276
신뢰감	실험집단	8.75(1.39)	9.25(1.28)	-1.41	.157
	통제집단	9.00(.76)	9.50(1.07)	-1.63	.102
친근감	실험집단	10.13(1.46)	10.50(1.41)	-1.13	.257
	통제집단	10.50(1.85)	10.50(1.85)	.00	1.00
민감성	실험집단	5.88(1.46)	6.38(.92)	-1.63	.102
	통제집단	6.50(.76)	7.13(.99)	-1.63	.102
개방성	실험집단	12.38(1.30)	14.00(.93)	-2.57	.010*
	통제집단	12.13(1.64)	12.38(1.77)	-.71	.480
이해성	실험집단	12.50(2.07)	16.00(.93)	-2.55	.011*
	통제집단	12.25(1.58)	12.38(1.06)	-.45	.6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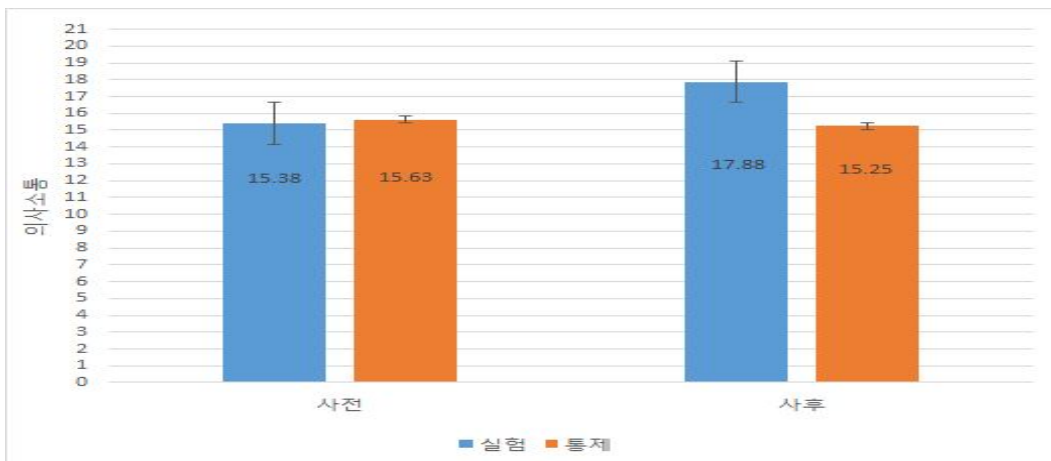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만족감 영역에서 실험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Z=-2.54, p <.05$)를 보이며 증가하였으나 통제집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Z=-1.09, p >.05$). 이에 대한 결과는 <그림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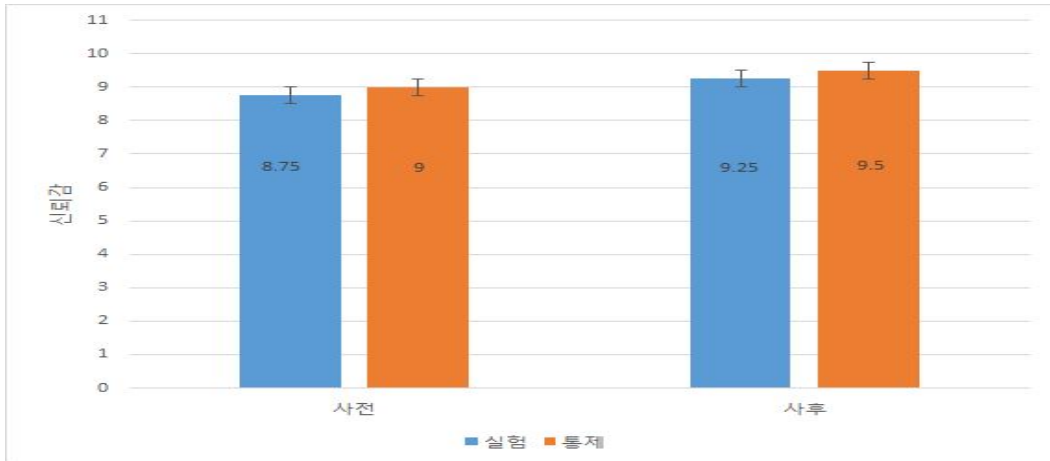
<그림 2> 만족감

의사소통 영역에서 실험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Z=-2.40, p <.05$)를 보이며 증가하였으나 통제집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Z=-1.09, p >.05$). 이에 대한 결과는 <그림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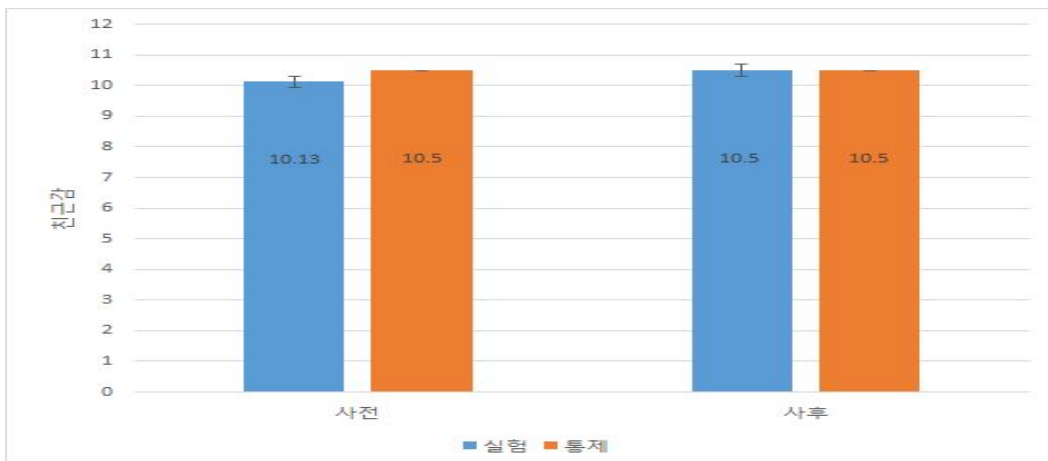
<그림 3> 의사소통

신뢰감 영역에서 실험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Z=-1.41, p >.05$) 통제집단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Z=-1.63, p >.05$). 이에 대한 결과는 <그림4>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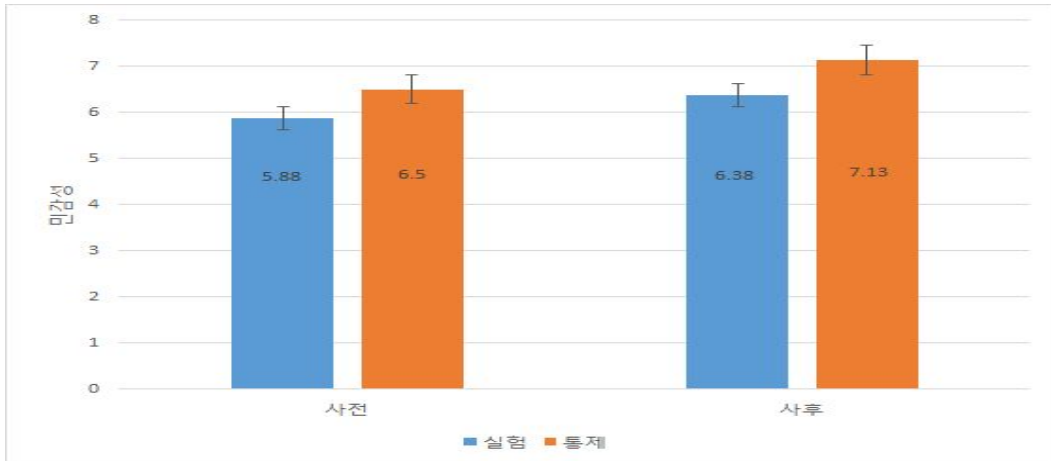
<그림 4> 신뢰감

친근감 영역에서 실험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Z=-1.13, p >.05$) 통제집단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Z=.00, p >.05$). 이에 대한 결과는 <그림5>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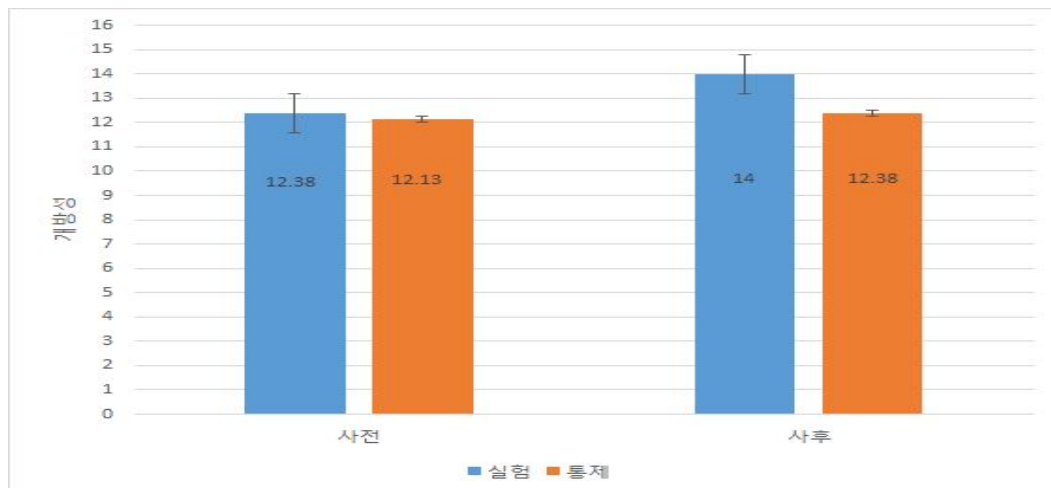
<그림 5> 친근감

민감성 영역에서 실험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Z=-1.63, p >.05$) 통제집단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Z=-1.63, p >.05$). 이에 대한 결과는 <그림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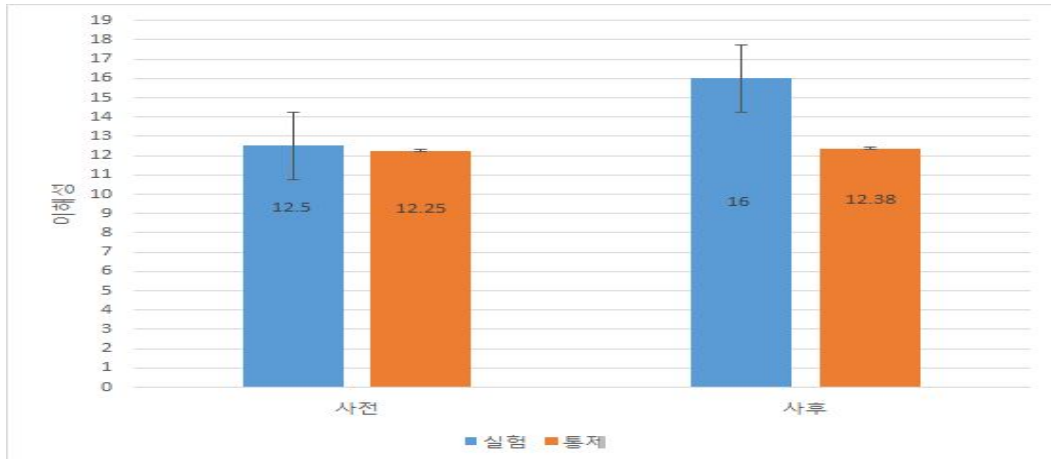
<그림 6> 민감성

개방성 영역에서 실험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Z=-2.57, p <.05$)를 보이며 증가하였으나 통제집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Z=-.71, p >.05$). 이에 대한 결과는 <그림7>과 같다.



<그림 7> 개방성

이해성 영역에서 실험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Z=-2.55, p < .05$)를 보이며 증가하였으나 통제집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Z=-.45, p >.05$). 이에 대한 결과는 <그림8>과 같다.



<그림 8> 이해성

4. 대상자별 행동변화 분석

1) 대상자 A

A는 프로그램 초기에 아동들이 앞에 나와 자신의 감정을 악기로 표현할 때 소극적인 행동을 보이는 아동에게 “빨리해라” 또는 “안 하려면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하며 타인의 행동을 기다리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행동을 보였다. A는 자신의 감정을 악기로 표현할 때 화난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데 악기를 밟아도 되냐며 거친 모습을 보였다. 5회기 칭찬 노래 만들기 활동에서 서로의 장점을 나누고 그룹 원으로부터 자신의 장점을 듣게 되면서부터 공격적인 행동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초반에 부정적인 행동을 보인 A는 회기가 거듭할수록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다려주는 모습을 보였다. 10회기 톤 차임 연주에서 A는 타인의 연주를 듣고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으며 연주 후 성취한 것에 대해 만족해하며 친구들과 하이파이브를 하였다. 대상자 A는 집단 활동을 하면서 초기에는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분노를 즉각적으로 표출하여 타인에게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느낌을 주었으나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며 서로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 민감한 판단으로 타인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2) 대상자 B

B는 치료사의 물음에만 반응하는 수동적인 태도로 프로그램에 관심 없는 모습을 보였다. 2회기 노랫말 채우기를 할 때 B는 “저 안 하면 안 돼요?” 라고 귀찮은 표정으로 말하며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5회기 그룹 원이 자신에 대한 장점을 이야기해 주자 B도 관심을 보이며 그룹 원의 장점을

이야기하면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갔다. 8회기에 버리고 싶은 행동이나 습관들을 노래로 만들고 나서 “내일은 그런 행동을 하지말자” 라고 그룹 원에게 이야기하며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였다. 10회기 좋은 친구관계를 위해 계획을 세울 때 친구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며 타인의 마음을 공감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대상자 B는 처음에는 프로그램 참여 의지를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회기가 지날수록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개방하면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켰고 적극적으로 타인의 관심을 이끌며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3) 대상자 C

C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치료사가 하는 질문들에 “몰라요, 저는 생각 주머니가 없어요.” 라는 식으로 치료사의 질문에 회피하거나 활동 수행을 거부하였다. 4회기 감정을 악기로 표현할 때 앞에 나와서 하는 것을 매우 부끄러워했으며 그룹 원과 등을 지고 악기를 만지다가 다시 치료실 맨 뒤로 가서 의자 밑에 숨어 악기를 다루는 모습을 보였다. C는 8회기에서 자신이 버리고 싶은 행동은 무엇인지 물어봤을 때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행동을 버리고 싶다고 이야기하였고 소극적인 자신의 행동이 변화되어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였다. 10회기 톤 차임 연주 시 C는 자신의 차례에 집중하여 틀리지 않게 연주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모두 함께 하니 멋진 노래가 만들어 졌어요.” 라고 말하며 그룹 원과 협동을 통하여 긍정적인 상호 교류를 경험하였다. 대상자 C는 초반에 또래들과 함께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보였으나 완성된 작품을 통해 만족감과 성취감을 나타냈으며 그룹 원과 감정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다.

4) 대상자 D

D는 첫 회기부터 다른 아이들과 말다툼을 하는 등 부정적인 행동을 보였다. 욕을 하거나 “재미없어” 와 같은 불평을 늘어놓으며 분위기를 산만하게 만들어 프로그램 진행을 어렵게 만들었다. 2회기, 3회기를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의 욕구와 자신의 욕구가 다르므로 내 생각만을 주장하면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4회기 자신이 화나거나 짜증 날 때의 상황을 악기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D는 과격하게 악기를 다뤘다. 그룹 원이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을 지켜보더니 “제가 조금 심했죠?” 라고 이야기 하며 자신의 행동이 올바른 행동이었는지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 회기에서는 앞으로 욕은 하지 않겠다고 그룹 원 앞에서 약속하였다. 대상자 D는 부정적인 행동 방식으로 타인의 관심을 받고자 했으며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점차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자신의 행동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변화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신과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을 모색해나갔고 이 과정을 통해 타인의 요구에 빠르게 반응하는 민감성이 향상되었다.

5) 대상자 E

E는 조용하고 거의 말을 하지 않는 편이었다. E는 혼자서 조용히 앉아 있고 치료사의 물음에 작은 목소리로 답하는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인사 노래를 할 때에도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4회기에서 자신의 감정을 악기로 표현할 때 부끄러워하며 약하고 힘없이 연주하였다. 치료사가 공감해주고 대상자의 용기에 칭찬해 주자 자신이 표현했던 감정에 대한 내용을 그룹 원에게 설명해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5회기에서 E의 장점은

“그림을 잘 그려요.” 라는 친구의 발표를 듣고 자신도 다른 그룹 원의 장점을 이야기하며 조금씩 그룹 원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9회기에서 10년 후 나의 모습을 편지를 써서 노래 만들기를 할 때, 치료사가 편지 읽기를 권하자 E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앞에 나와 자신의 편지를 읽으며 자신을 개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대상자 E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였으나 다른 친구로부터 칭찬을 들을 후 만족감을 느끼며 자신감을 얻었고, 타인과 신뢰관계를 형성해 나갔다. E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위축된 모습에서 벗어나 마음을 열고 타인과의 상호 교류를 시도하였다.

6) 대상자 F

F는 1회기에 들어섰을 때 옆 친구를 괴롭히고 장난을 치며 집중을 하지 않아 프로그램을 지연시켰다. 치료사가 주의를 주었으나 잠시뿐 첫 회기 내내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하였다. 악기를 고를 때에도 친구들을 배려하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친구가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였고 친구가 악기로 연주할 때 자신의 악기를 크게 연주하는 등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다. 4회기에서 자신의 행동을 악기로 표현할 때, 거칠게 표현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몇씩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8회기에서 자신이 버리고 싶은 행동이나 습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보다 연약한 친구를 놀리고 괴롭히는 행동을 버리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야기를 들은 다른 그룹 원이 F의 편을 들어주며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자 웃으며 “알겠어” 라며 그룹 안에서 지지를 경험하고, 타인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10회기에서 톤 차임을 연주할 때, 옆 친구가 자신의 차례를 헛갈려 하자 도와주는 모습을 보였고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대상자 F는 초반에 산만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자신의 행동이 타인이

싫어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조금씩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임으로써 자신과 다른 욕구를 가질 수 있음을 깨닫고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7) 대상자 G

G는 감정 기복이 심하여 금방 즐거워했다가도 기분이 침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G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인해 또래와의 관계에서 소외를 경험하였다. 2회기에서 아름다운 세상 노래에서 문득 외롭다 느낄 때라는 구절에서 자신은 외로움을 자주 느낀다며 이야기하였다. 4회기에 G는 화가나고 슬픈 상황에 대해서 자신을 괴롭히는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핸드 드럼으로 강하게 연주한 후 “스트레스가 풀리네요.” 라고 말하며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7회기 학교생활에서 바뀌야 될 행동에 대해 토의할 때 G는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그룹 원에 대해 “네 생각이 맞을 수도 있겠다.” 라고 말하며 타인에 의견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상자 G는 초기에 타인의 기분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 변화에 따라 행동하여 소통에 어려움을 느꼈다. 회기를 거듭할수록 자신의 부정적 행동을 변화시키길 원했고 행동을 하기 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려고 노력하였다.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두터운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8) 대상자 H

H는 치료사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며, 내성적인 모습을 보였다. 1회기를 시작하였을 때, 인사 노래를 하며 옆 친구와 인사를 하라는 치료사의 제안

에도 거부반응을 보였으며 앞만 보고 있었다. 또한 H는 치료사의 질문에 네, 아니요로 간단한 대답만 하였다. 단답형으로 대답만 하던 H는 3회기 친구관계에서 바라는 점을 나눌 때 “친구랑 대화하는 것이 부끄럽고, 친구들은 저를 싫어해요.” 라고 친구관계에서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이야기하였다. 그 후 5회기 때 친구가 자신의 장점을 이야기해 주자 H는 “부끄럽지만 기분은 좋네요.” 라고 이야기하였다. H는 회기가 진행되면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통해 자신을 친구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9회기에 10년 후의 나의 모습을 편지로 적는 시간에 “다른 친구들의 꿈도 꼭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적극적으로 타인과의 상호 교류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상자 H는 생각이나 감정을 스스로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였으나 그룹 원과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또래 간의 안정과 지지를 경험하였고 자신감이 향상되어 활동 참여도가 높아졌으며, 이를 통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V. 결론

1.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음악치료가 결손가정 아동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전라남도 여수시 D초등학교 형태적 결손가정 아동 16명으로 대상자들 중 8명은 실험집단에 8명은 통제집단에 무선배치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2014년 9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각 회기 당 50분씩 주 1회, 총 10회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손가정 아동의 대인관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대인관계능력 척도를 사용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으로 분석하였다.

실험 전 두 집단 간의 사전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대인관계능력 척도 및 하위 요인 사전 점수에 대해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인관계능력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점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p > .0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동질한 집단임이 확인되었다.

첫째,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대인관계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p < .01$)를 보였다. 또한 변화의 추이를 보기 위해 각 집단의 사전 사후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험집단의 대인관계 평균 점수는 77.50점에서 89.38점으로 향상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 < .05$)를 보였다. 반면 통제집단은 평균점수가 78.63점에서 80.13점으로 유의미한 차이($p > .05$)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집단음악치료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올바른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 대인관계 능력이 향상됐다는 연구(박혜영, 박부진, 2010; 안지숙, 2008)와 현실요법이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우현주(200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음악치료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대인관계의 하위 요인 만족감, 의사소통, 개방성, 이해성 네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반면에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세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 > .05$). 세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사전 사후 점수 비교 결과 긍정적인 향상을 보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집단음악치료를 실시한 권주희(2010)의 연구에서 대인관계 모든 하위 영역에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현실요법을 실시하여 만족감, 친근감, 개방성, 이해성에 효과가 있었다는 정혜진(2006)의 연구와 만족감과 친근감에 효과가 있었다는 김양진(2004)의 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시행한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음악치료 프로그램이 결손가정 아동의 대인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임이 밝혀졌다. 관계향상을 위한 현실요법의 W-D-E-P 단계를 통해 아동은 자신과 타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서로가 원하는 바를 조절하면서 타인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여나갔음을 유추할 수 있다. 각 단계마다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시행된 음악적 중재를 통해 아동은 서로에게 친근감과 만족감을 느끼고 자연스러운 자기표현으로 의사소통, 민감성, 개방성이 향상되어 결과적으로 대인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음악치료는 결손가정 아동의 대인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치료적 접근 방법이 될 수 있음에 의의가 있다.

2. 제언

본 연구는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음악치료가 결손가정 아동의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는 본 프로그램이 결손가정 아동의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중재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을 보완한다면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초등학생 정서에 맞는 대인관계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비롯한 대인관계를 측정하는 연구에서 대부분 외국의 것을 번안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용어나 정서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다. 국내 아동의 정서에 맞는 용어 사용과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비된 척도의 개발을 통해 보다 정확한 아동들의 대인관계 검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가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대인관계 향상에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전라남도 여수시 D초등학교 4,5,6학년에 국한된 작은 모집단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전체 아동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일반화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인원과, 다양한 연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프로그램 회기가 총 10회기로 현실요법을 적용한 음악치료의 효과를 행동화, 내면화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회기를 추가하여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연구하여 보완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효과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노아. (2009). 음악심리치료가 학습부진아의 학습동기에 미치는 효과.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6(2), 1-22.
- 강문희. (2005). 사회극이 초등학교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자기표현능력 및 자기표현 행동에 미치는 효과. **한국아동학회**, 26(4), 1-15.
- 권주희. (2010). 집단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동서보완의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기광도. (2009). 결손가정과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분석. **형사정책연구**, 77, 41-70.
- 김동주. (2011). 창의적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학습동기 증진에 미치는 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문주, 심혜숙. (2012). 학교적응유연성 증진 집단 상담이 기능적 결손가정 중학생의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교육혁신연구**, 22(2), 71-95.
- 김세영, 박부진. (2011). 현실요법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아동과 권리**, 15(3), 455-479.
- 김순자, 김갑숙. (2006). 현실요법적 집단미술치료가 학습부진 청소년의 성취동기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13(3), 572-552.
- 김양진. (2004).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 및 전 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란, 안민주. (2005). 결손가정 아동과 정상가정 아동의 성역할 정체감 및 자아존중감 비교 연구. **인간이해**, 26, 105-124.
- 김영호, 최응용. (2006). 정신역동 진로집단상담과 현실치료 진로집단상담

- 이 대학생의 자존감, 내외통제성,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효과. **진로교육연구**, 19(3), 77-92.
- 김인자. (2001). **당신도 유능한 상담자가 되고 싶은가?** 서울: 한국심리상담연구소.
- 김인자. (2005). **현실요법과 선택이론**. 서울 : 한국심리상담연구소.
- 김진주, 고정자. (2010). 현실요법 집단미술치료가 아동의 내적통제성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17(4), 811-834.
- 김현지, 성영혜. (2003). 어머니와의 애정적 유대와 아동의 외로움 및 대인관계 성향. **아동연구**, 16(2), 1-27.
- 도기봉, 오현숙, 박명호. (2006). 현실요법 집단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향상에 미치는 효과. **복지행정학회**, 16(2), 101-120.
- 문선모. (1980). 인간관계훈련 집단상담의 효과에 관한 일 연구. **논문집**, 19(2), 195-203.
- 문지영. (2010). 집단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유치원 아동의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 **예술교육연구**, 8(2), 35-48.
- 문지영, 이수진. (2010). 자기성장을 위한 음악치료 활동이 발달장애아동 양육자의 자아존중감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연구**, 16(1), 25-42.
- 박광선, 주대창. (2013). 음악 활동이 초등학교 신입생의 적응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계슈탈트치료연구**, 3(2), 57-69.
- 박환영. (2013). 노래중심 음악치료 활동이 초등학교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영, 박부진. (2012). 집단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가족치료연구**, 11, 69-83.

- 배홍숙. (2014). 한부모 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모래놀이치료 사례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경희. (2010). 선후창 방식의 치료적 음악활동이 시설 노인의 고독감 감소와 대인관계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2(3), 19-38.
- 서석희, 박애선. (2007). 현실요법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노인의 죽음불안과 삶의 의미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1), 107-130.
- 서종미. (2013). 집단음악놀이치료 프로그램이 유아의 부적응 행동, 정서조절 능력 및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효과.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미경, 정규진, 최애나. (2011). 집단음악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7(4), 221-237.
- 심경옥. (2006). 초등학생의 외모만족도와 대인관계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세근, 이현길. (2001). 결손가정 아동들의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교육논단**, 1(1), 75-103.
- 안지숙. (2008). 집단음악치료활동이 결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지은. (2007). 그룹 음악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4(1), 1-20.
- 여정윤. (2010).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개별 음악치료 사례연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2(1), 16-40.
- 우현주. (2006). 현실요법을 적용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기개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근매. (2004). 집단미술치료가 저소득층 결손가정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

- 성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20(1), 357-327.
- 이민화. (2014). 노래중심 집단음악치료 활동이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화. (2010). **아동 음악치료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한진.
- 이은경. (2004). 결손가정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연구: 사회 인공학적 변인 및 양육자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이화교육논총**, 14, 79-93.
- 이은수. (2009). 결손가정 아동들이 보육시설에서 느끼는 또래 갈등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유아교육연구**, 5(1), 67-83.
- 이인희, 김명숙. (2013). 조선족과 한족 결손가정 아동집단의 문제행동 변인간의 구조적 관계 비교. **비교교육연구**, 23(4), 197-222.
- 이주영. (2008). 방입된 아동의 공격성과 분노 감소를 위한 분노조절 음악 프로그램 연구.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5(2), 17-40.
- 이재모. (2006). 현실요법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학교생활 부적응 청소년의 내외통제성과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13(6), 127-150.
- 이지선, 정여주, 백정애, 백이화, 최영, 장매희. (2011). 원예활동 및 그림 그리기 병행 프로그램이 저소득 결손가정 아동의 정서발달 및 주의집중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간·식물·환경학회지**, 14(1), 1-7.
- 이혜령, 유형근, 조용선. (2014). 기능적 결손가정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한국직업교육학회지**, 33(1), 53-79.
- 임지혜. (2009). 노래심리치료를 통한 청소년의 시험불안 감소에 관한 연구.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6(1), 77-106.

- 전희란. (2009). 그룹음악치료를 통한 과잉-분리가정 청소년의 소외감 감소에 관한연구.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6(2), 71-100.
- 정광조, 한순옥, 최애나, 최낙천. (2010). 음악치료가 초등학교 아동의 학원과 외 학습으로 인한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6(2), 65-79.
- 정미라, 장영숙, 김순규. (2011).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및 학습동기 간의 관계. **아동교육**, 20(2), 221-234.
- 정영남. (2000).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사춘기 여성의 신체상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현정. (2009). 음악심리치료가 새터민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6(1), 1-31.
- 정현주, 김동민. (2010). **음악심리치료**. 서울: 학지사.
- 정혜진. (2006). 현실요법을 적용한 신체상 향상이 자기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진, 신선미, 정태현(2012). 사회기술 향상 프로그램이 결손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9(2), 227-249.
- 조미숙. (2005). 증가하는 결손가정과 아동보호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2(2), 185-204.
- 조수연, 안귀여루. (2012). 결손가정 청소년들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 **한국심리치료학회지**, 4(1), 33-47.
- 조은희. (2009). 집단음악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사회적 기술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 플루트 앙상블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치료학회지**, 9(2), 147-167.
- 진소영. (2001). 음악활동이 초등학교 아동의 우울성향 감소에 미치는 효과.

- 한국음악치료학회지, 3(1), 1-14.
- 진선주. (2005). 성인정신지체인의 감정 표현 향상을 위한 음악 활용의 효과.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2(1), 17-33.
- 최지순, 김정규. (2008). 아동·청소년상담 : 내면화 문제를 가진 저소득 결손 가정 아동의 게슈탈트 예술치료 효과 연구. **상담학연구**, 9(3), 1167-1181.
- 최명민. (2000). 학령기 아동의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아동복지학**, 9(1), 67-97.
- 최애나, 강효현. (2007). 통합예술치료가 결손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11(2), 71-87.
- 통계청. (2013). **인구주택 총 조사 자료**. 통계청. <http://kosis.kr/>
- 허순희. (2002). 음악치료를 통한 즉흥연주의 효과. **아동교육**, 11(2), 217-229.
- Aigen, K. (2011). Music Centered Music Therapy. 이경숙, 류리(역). **음악중심 음악치료**. 서울: 학지사(원서출판, 2005).
- Borzon, R. M. (2004). Music Therapy: Group Vignettes. 이정실(역). **집단 음악치료**. 서울: 학지사(원서출판, 1992).
- Boyle, J. D., Radocy, R. E. (2001).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Musical Behavior. 최병철, 방금주(역). **음악심리학**. 서울: 학지사(원서출판, 1997).
- Brooks, H. B. (1973). The role of music in a community drug abuse prevention program. *Journal of Music Therapy*, 10, 3-6.
- Bruscia, K. E. (2003). Defining Music Therapy. 최병철(역). **음악치료**. 서울: 학지사(원서출판, 1999).
- Glasser, W. (1988). Reality therapy. 김양현(역). **현실치료**. 서울: 원미사

- (원서출판, 1965).
- Glasser, W. (1992). *Control Theory: A New Explanation of How We Control Our Lives*. 김인자(역). **당신의 삶은 누가 통제 하는가?** 서울: 한국심리연구소(원서출판, 1985).
- John, J. D. (2005). A comparison of songwriting and lyric techniques to evoke emotional change in a single session with people who are chemically dependent. *Journal of Music Therapy*, 42(2), 94-110.
- Layman, D. L., Hussey, D. L., Laing, S. J. (2002). Music therapy assessment for severely emotionally disturbed Children: A pilot study. *Journal of Music Therapy*, 39(3), 164-187.
- Saarikallio, S. (2010). Music as emotional self-regulation throughout adulthood. *Psychology of Music*, 39(3), 307-327.
- Schlein, S. P., Guerney, B. G. (1971).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Tervo, J. (2001). Music Therapy for Adolescents. *Clinical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6(1), 79-91.
- Wanda, B. Lathom-Radocy. (2009). *Pediatric Music Therapy*. 최병철, 박소연, 황은영(공역). **아동음악치료**. 서울: 학지사(원서출판, 2002).
- Wubbolding, R. E. (2001). *Reality Therapy for the 21st Century*. 박애선(역). **21세기와 현실요법**. 서울: 시그마프레스(원서출판, 1976).
- Wubbolding, R. E. (2008). *Using reality therapy*. 김인자(역). **현실요법의 적용**. 서울: 한국심리상담연구소(원서출판, 1998).

ABSTRACT

The Effect of Group Music Therapy Applied with Reality Therapy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Children from Dysfunctional Families

Son, Mi-Na

Department of Music Therap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Group Music Therapy applied with Reality Therapy affect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mong children from dysfunctional families. This study was conducted at D elementary school in Yeosu city, Jeollanamdo, South Korea from September 6 to November 8, 2014. Eight subjects out of sixteen participants were placed in the control group, while the remaining eight formed the experimental group that participated in a group music therapy program for 50 minutes per session, once a week for 10 times.

In this study, SPSS 20.0 was utilized to analyze the data. The Mann-Whitney U-test was employed to figure out whether there is a significant impact on children'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fter group music therapy. In addition, Wilcoxon Matched Pair analysis was used to

compare and contrast the changes in the pre and post behavior of the participants in both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The results of the Mann-Whiney U-test show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p <.01$) in the scores of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In terms of changes in the pre and post behavior of the participants,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score($p <.05$) of the experimental group, whereas the control group did not exhibit a significant difference ($p >.05$). Among seven sub categories of personal relationships, three domains--satisfaction, communication, and openness--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p <.01$). However,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not discovered in the domains of credibility, intimacy, and sensitivity ($p >.05$).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ndicate that Group Music Therapy applied with Reality Therapy is an effective method for improving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children from dysfunctional families.

< 부록 1 > 대인관계능력 척도

* 각 문항을 잘 읽고 여러분에게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솔직하게 나타낸 것을 1개 골라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년 : ()학년	★ 성별 : 남(), 여()
---------------------	---------------------------------

번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편이다.	1	2	3	4	5
2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만족하는 편이다.	1	2	3	4	5
3	다른 사람이나 친구들은 나를 만족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 할 것이다.	1	2	3	4	5
4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인간으로서 만족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 같다.	1	2	3	4	5
5	다른 사람들과 나의 관계는 좋은 편이다.	1	2	3	4	5
6	나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을 잘 깨닫는다.	1	2	3	4	5
7	나는 내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한다.	1	2	3	4	5
8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한다.	1	2	3	4	5
9	나는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쉽게 느껴진다.	1	2	3	4	5
10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끼는 데 빠른 편이다.	1	2	3	4	5
11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 따뜻한 태도나 관심이 많은 편이다.	1	2	3	4	5

12	나는 나 자신을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해 느낌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1	2	3	4	5
13	나는 다른 사람의 느낌을 잘 이해하는 편이다.	1	2	3	4	5
14	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공감하여 잘 들어주는 편이다.	1	2	3	4	5
15	나는 다른 사람을 잘 믿는 편이다.	1	2	3	4	5
16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늘 친근감을 느낀다.	1	2	3	4	5
17	나는 다른 사람을 상대하는 일에 자신감이 많다.	1	2	3	4	5
18	내 생각이나 느낌이 다른 사람과 다를 때 나는 그 상황을 잘 해결하는 편이다.	1	2	3	4	5
19	나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1	2	3	4	5
20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좋은 느낌을 잘 표현해준다.	1	2	3	4	5
21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생각이나 좋지 않은 느낌도 잘 표현하는 편이다.	1	2	3	4	5
22	나는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일을 다른 사람과도 잘 이야기한다.	1	2	3	4	5
23	다른 사람이 나를 좋다고 말하거나 칭찬할 때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다.	1	2	3	4	5
24	다른 사람이 나의 단점이나 잘못을 고치라고 말할 때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다.	1	2	3	4	5
25	나는 앞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잘 알고 있다.	1	2	3	4	5

< 부록 2 > 사용 노래 가사

* 2회기

유리 상자-아름다운세상

문득 외롭다 느낄 땐 하늘을 봐요 같은 태양 아래 있어요 우린 하나예요
마주치는 눈빛으로 만들어가요 나즈막이 함께 불러요 사랑의 노래를
작은 가슴 가슴 마다 고운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세상
혼자선 이룰 수 없죠 세상 무엇도 마주 잡은 두 손으로 사랑을 키워요
함께 있기에 아름다운 안개꽃처럼 서로를 곱게 감싸줘요 모두 여기 모여
작은 가슴 가슴마다 고운 사랑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세상

* 3회기

동요- 친구가 되는 멋진 방법

첫 번째로 인사하기 친구 얘기 들어주긴 두 번째
세 번째엔 진심으로 맞장구치기 [그래그래]
그다음에 시작하는 나의 이야기는 네 번째
하고픈 말 빨리하고 싶지만 조금만 기다려요.
하하하하 눈빛웃음 주고 그래그래 마음깊이 이해하고
맞아 맞아 진심으로 나누다보면
정말정말 내 친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가득
친구가 되는 제일 멋진 방법은 마음으로 들어주기
랄랄라라 한걸음 라라랄라 두걸음
마음으로 들어주기가 제일 이예요

* 4회기

동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기쁨의 그 날 위해 함께 할 친구들이 있잖아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나의 친구랍니다
우리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모진 시련에 좌절도 하겠지만
우리의 친구들과 함께 라면 두렵지 않아
우리 모두 함께 손을 잡고 윈! 투! 윈투! 쓰리포!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기쁨의 그 날 위해 함께 할 친구들이 있잖아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나의 친구랍니다.

* 5회기

악동뮤지션-매력 있어

매력 있어 내가 반하겠어
다이어트 중 마주친 치킨보다 더 매력 있어
어쩔 땐 바삭한 어쩔 땐 매콤한 반전의 그대여
매력 있어 내가 반하겠어
대대대대대기업 회장비서 보다 더 매력 있어
겨울밤 뜨끈한 오뎅 국물보다 매력 있어
네 어떤 면이 도대체 내 맘을 따뜻하게 하는지
회장비서 보다 더 매력 있어

* 6회기

박혜경-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빛바랜 나의 일기장
작은 나의 얘기까지 말하고 싶은 거야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바다로 가는 기차표
수줍게 전해 주고픈
너의 생일 첫 선물

* 7회기

토이-스케치북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동안
어떤 색을 칠할 수가 있을까
파란하늘처럼 하얀 초승달처럼
항상 그렇게 있는 것처럼 살 수 있을까
붓을 들 땐 난 고민을 하지
조그만 팔레트 위에 놓인
몇 되지도 않는 물감들은 서로 날 유혹해
화려한 색칠로 멋을 냈지만 들여다보면 어색할 뿐

고민하지 마 너 느끼는 그대로
너의 지금 모습 솔직하게 그리면 되잖니
걱정하지는 마, 니 작은 꿈들을
칠할 하얀 공간 아직까지 충분해

* 8회기

태사비에-소원을 말해봐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오래 품어온 제일 큰 꿈은
우리의 미래 함께 만들어 갈래
소원을 말해봐 꿈꿔왔던 소원을 말해봐 간직해둔
너만의 소중한 아름다운 꿈
소원을 말해봐 그려왔던 소원을 말해봐 크게 외쳐봐
눈부시게 빛나는 세상

* 9회기

루씨-무비스타

난 될 거야 되고 말거야 아직 나를 몰라보고 있는것 뿐야
지금 내모습 초라하지만 변해버린 내 모습을 보게 될거야 날 두고 봐
난 언제나 꿈을 꾸었어 화면속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어
이제는 나를 멈출 수 없어 후회 없는 내 인생을 살아볼 거야
내 모든 걸 자신 있게 보여줘야 해 하나둘씩 꿈을 키워 가는 거야

I Wanna be a movie star. Wanna be a lucky star.

그 아무리 어려워도 할 수 있어

I Wanna be a movie star. Wanna be a shining star.

나의 길은 이것뿐인 거야 이젠 내가 바로 주인공이야 날 두고 봐

* 10회기

무한도전-그래, 우리함께

너에게 나 하고 싶었던 말 고마워 미안해
함께 있어서 할 수 있었어, 웃을 수 있어
정말 고마웠어, 내 손을 놓지 않아 줘서
힘을 내볼게 함께 있다면 두렵지 않아
내가 늘 웃으니까 내가 우습나 봐
하지만 웃을 거야 날 보고 웃는 너 좋아
자꾸만 도망치고 싶은데
저 화려한 큰 무대 위에 설 수 있을까? 자신 없어
지금까지 걸어온 이 길을 의심하지는 마
잘못 든 길이 때론 지도를 만들었잖아
혼자 걷는 이 길이 딱딱하겠지만
느리게 걷는 거야 천천히 도착해도 돼
함께 하자는 친구의 말도

의미 없는 인사처럼 슬프게 들릴 때 날 찾아와

그래, 괜찮아 잘해온 거야 그 힘겨운 하루 버티며 살아낸 거야
지지마 지켜왔던 꿈들 이게 전부는 아닐 거야 웃는 날 꼭 올 거야
괜찮아 잘해온 거야 길 떠나 헤매는 오늘은 흔적이 될 거야
시원한 바람 불어오면 우리 좋은 애길 나누자 시간을 함께 걷자
그게 너여서 좋아. 그래, 우리 함께

copyright © 2015 네이버 (www.naver.com)